

# 2012.4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 2012년 4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대전문화방송

## 1. 회의개최

일시	장소	참석인원 수		비고
		위원	방송국	
2012.4.24	대전MBC 대회의실	8/11	5	

○시청자위원 불참자(3명) 명단: 유치벽,여운철,김진국 위원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 강덕원 경영기획국장, 김미리 편성제작국장, 임양재 보도국장, 정갑관 기술국장, 장래균 기획심의부장

##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6	3		1	10		10

###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계
건수		10		10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건	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해당사항 없음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기타	지역방송은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담는다. 대전MBC는 적은 인력과 제작비로 나름의 역할을 하는데 앞으로가 문제다. 지상파가 위기다.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 (김재영 위원)	중편채널의 등장, 민영 미디어랩 등장 등으로 지역방송사는 풍전 등화다. 새로운 수익창출을 위해 전 사원이 매진하고 있다.	의견참고
보도	'주 5일제 수업'을 잘 보도했다. 학교폭력 문제로 중학교에 상담교사를 많이 배치하여 초등학교엔 상담교사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 문제를 다뤘으면 좋겠다. (김경옥 위원)	취재시 참작해서 현장취재 하도록 하겠다.	보도 의견참고
교양	'건강플러스'는 여타의 건강 프로그램보다 유익하고 전달형식이 우수하다. 다만 전문의가 설명할 때 영어표현을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표현했으면 좋겠다. (신현대 위원)	매번 쉬운 의학용어로 풀어서 설명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나 쉽지 않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겠다.	편성 의견참고
보도	지역 아이템이 전국보도 될 때 지역에서 다시 보도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땐 아이템을 빼거나 간단히 보도하는게 맞는 것 같다. (신현대 위원)	서울 나가면 로컬은 빼는게 정상이다. 하지만 로컬 뉴스 구성상 빼서는 편집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지적에 감사한다.	보도 의견참고
교양	지난 해엔 우수한 다큐멘터리를 많이 제작했다. 올 해도 고품격의 다큐멘터리 제작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 (신현대 위원)	올해에는 금강하구개발 30주년 특별기획 '금강하구연'과 '명인'시리즈 '예인 이광수'편을 비롯해 다양한 특집 다큐를 준비하고 있다.	편성 의견참고
보도	파업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파업으로 세계 요리사 대회 등 지자체의 홍보기능이 상실됐다. (김경숙 위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파업이 빨리 해결돼 시청자들의 욕구가 만족되도록 노력하겠다.	보도 의견참고
보도	'특집토론-4.11총선에 따른 향후 정국전망은?'은 성공적이었다. 다만 타지역 패널이 전국의 흐름을 얘기해야지 자기 지역 얘기만 하는 것은 옥의 티였다. (김경숙 위원)	부족한 점 인정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보도 의견참고
보도	오늘은 대전MBC TV개국 41주년이 되는 날로 감회가 새롭다. 총선 중계차 보도에서 국장급이 리포팅하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김영광 위원)	지금은 긴급 상황이다. 국장도 현장에서 뛰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다시 재현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보도 의견참고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보도	올 해는 세종시 이전, 도청 이전 등 중요한 역사가 많다. 파업으로 어렵지만 차질없는 보도 당부한다. (김영광 위원)	세종시, 도청 이전으로 방송권역이 다원화되고 있다. 파업으로 어렵지만 차질없이 보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도 의견참고
교양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부정부패다. 가정의 위기도 여기서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부정부패 추방 캠페인 제작은 어떤가 (장인순 위원)	부정부패 추방 캠페인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 현재 캠페인은 협찬사와 협의해 제작하고 있다. 부정부패 관련 캠페인에 대해서도 협찬사와 논의해 보겠다.	편성 의견참고